

# [n]-출현 현상의 두 가지 양상

이희두

(원광대학교)

**Lee, Hee-Doo. 2011. A Phonological Study on the [n]-Appearance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4). 191-208.** The additive [n] has appeared in the formation of compound nouns, derived words and phras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In these cases, the surfaced [n] neither originally exists nor is inserted during their derivative process. I suggest that this phonological phenomenon is caused by the sonority meditation by changing [j] to [ɲ] within the prosodic phrase. Because the initial [j] of a following second syllable is not a vowel, [j] is changed to [ɲ] by decreasing its sonority in order to satisfy the syllable contact constraint. Another motivation of the surfaced [n] is found at the boundary of the following word with initial /i/. The phonetic motivation of the inserted [n] is explicitly not clear and [n] also does not appear in front of the nominative case 'i' and designated case 'i-'. We notice that /i/-initial Sino-Korean did not represent [n] insertion. Therefore /j/ and /i/ undergo different phonological processes. Historically, as the domain of initial sound law was extended to the non-initial position within a prosodic phrase, this restructuring process was gradually expanded through many kinds of words and so both conservative forms and innovative forms coexist.

**Key Words:** [n]-appearance, sonority adjustment, prosodic phrase, restructure

## 1. 머리말

우리말의 합성어 '콩엿'과 접두파생어 '늦여름' 및 구 구성의 '웃 입다'는 각각 [콩녘], [는 녀름] 및 [은넙따]로 음성 실현된다. 이때 음성 실현되는 'ㄴ'을 기저형의 'ㄴ'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성낙수 1995 등), 또는 이와 반대로 도출 과정에서 첨가된 것(오미라 2006 등)으로 보기도 하였다. 기저형의 'ㄴ'이 실현된 것으로 보면, '여우'와 같이 기저형의 어두에 '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어두 'ㄴ'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첨가로 보더라도 왜 하필 무표자음 'ㄴ'이 아닌 'ㄴ'이 첨가되는가의 이유와 그 첨

가 환경이 특수해서 문제가 된다. ‘ㄴ’첨가로 보는 설명에서도 단순히 음운론적으로 해명되지 않으므로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박선우 2005). 음절경계와 형태소경계를 일치시키는 정렬제약(Align)이 ‘ㄴ’첨가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ㄴ’ 출현을 정렬제약(Shin 1997, Lee 2004)이나 위치적 무표성 제약에 의한 첨가로 보지 않고 단순한 자연스런 음운현상으로 이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현상은 우리말의 운율구(prosodic phrase) 내에서 발생하는 열림도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앞 열림도 ≥ 뒤 열림도’와 같은 음절접촉 제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김차균 1981, 김세진 2009), 이를 지키기 위해  $j$ 가  $n$ 으로 열림도를 조정하여 낮은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의  $j$ 는 음절초성의 위치에 있으므로 물론 자음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두음법칙의 강력한 영향 때문에 그 환경  $_i/j$ 를 항상 묶어 생각했으나 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음 위치에서  $i/j$  앞의 ‘ㄴ’을 허용하지 않는 두음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의 전도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엄밀한 전도규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i$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利子)와 같은 한자어 및 조사 ‘이’나 지성사 ‘이’ 앞에서는 결코 ‘ㄴ’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나[사랑니] 또는 ‘꽃이불[꼴니불]~[꼬디불]의 경우는,  $i$  모음 앞에서 ‘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ㄴ’도  $i$  모음 앞에서 첨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의 중세 어형은 ‘나, ‘니불’로서 ‘ㄴ’을 본래 가졌던 어형들이다. 근대국어에 이르러 두음법칙에 의해 ‘이, ‘이불’로 재구조화했으나, 운율구 내의 비어두 위치에서는 아직 재구조화가 완료되지 않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꼴니불]~[꼬디불]의 수의성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어휘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를 것인데, [사랑니]의 경우는 재구조화에 대해 강한 저항을 보이는 보수형인 것이다.

$n$ 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예들은 성분통어(c-command), OCP(XP), 운율구최소길이(PM), 계층정렬(Align) 제약을 만족시키는 운율구 내에서 음절접촉(SyllCon) 제약을 준수하기 위해  $j$ 의 열림도를  $n$ 으로 조정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다른 한편  $i$  모음 앞에 ‘ㄴ’이 출현한 것은 어두의 ‘ㄴ’탈락이 운율구 내의 비어두 위치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감으로써 현재 재구조화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신형(‘ㄴ’탈락형)과 보수형(‘ㄴ’유지형)이 수의적으로 출몰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ㄴ’은 서로 다른 두 기저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음절접촉에 의한 열림도 조정

음절 접촉에 의한 열림도 원리는 합성명사, 파생어 및 구에서 적용되어 ‘ㄴ’을 출현시키므로 이 원리는 운율구(prosodic phrase) 내에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구 구성에서의 ‘ㄴ’출현에는 합성어 내부에서의 조건 이외에도 발화속도, 화자의 문장 발화시의 기식 습관과 같은 조건이 개입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율구를 이루는 낱말들은 휴지 없이 하나의 말토크로 발음된다.<sup>1)</sup>

- (1) ㄱ.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ㄴ. 국어학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많다.  
 ㄷ. 아주 재미있는 야구경기였다.

구 구성에서 ‘ㄴ’출현은 후행어가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인 경우에 잘 일어난다. 그러나 후행어가 i로 시작하는 경우(예: 나는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또는 두 낱말 사이에 말마디 경계(기식군)가 부가되는 경우(예: 나는 축구는 싫어하지만, 야구는 좋아한다.)에는 ‘ㄴ’이 나타나지 않는다(오세내 2001).

(1)의 운율구 ‘문을 열고’, ‘국어학 연구자’, ‘재미있는 야구경기’는 2개의 운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Selkirk(1986)에 의하면 운율구는 상위의 억양구와 하위의 운율어 사이에 존재한다.

Kim(1997a, 2000, 2004a, 2004b)에 의하면,  $W_1$ 과  $W_2$ 가 운율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첫째는 성분통어 제약(C-command constraint)으로서  $W_1$ 은  $W_2$ 로부터 성분통어되어야 한다.<sup>2)</sup>

### (2) 성분통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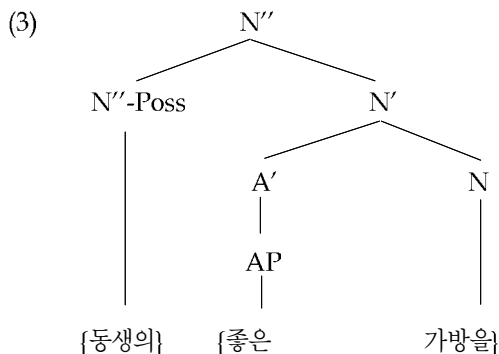
a와  $\beta$ 가 하나의 운율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가  $\beta$ 에 성분통어되어야 한다.

아래 (3)의 구조에서 세 번째 단어 [가방을]은 두 번째 단어 [좋은]을 성분통어하지만, 두

1) 말토크이란 휴지 pause가 부과되는 끊기의 단위로 말토크의 내부에는 휴지가 부가되지 않으며, 말토크 경계가 생기면 경계 이후의 단위는 다시 새로운 억양과 리듬이 부가된다(이호영 1996:195). 예(1)은 오세내(2001) 인용.

2) 성분통어의 개념은 Reinhart(1981)를 따르고 있는데,  $W_1$ 과  $W_2$ 가 서로 지배관계에 있지 않고  $W_1$ 을 지배하는 첫 번째 분지마디(branching node)가  $W_2$ 도 지배하면  $W_1$ 과  $W_2$ 는 서로를 성분통어할 수 있다. N. Kim(1997)은 Reinhart의 성분통어 개념을 이용하여 성분통어 제약(C-command constraint)을 제안하고 있다.

번째 단어 [좋은]은 첫 번째 단어 [동생의]를 성분통어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는 하나의 운율구를 형성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단어와 운율구를 형성할 수 없다.<sup>3)</sup>



두 번째로 통사구조를 참조하는 제약으로 OCP(XP)가 있다. 이 제약은 동일한 최대투사 범주가 하나의 운율구 속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약이다. 예를 들면 \*{N'' N''}, \*{V'' V''}, \*{A'' A''}, \*{Ad'' Ad''}와 같은 운율구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등위 접속된 최대투사범주들이 동일한 운율구 속에 나타날 수 없음을, 그리고 주어인 N''와 목적어인 N''가 동일한 운율구에 들어 갈 수 없음을, 또한 간접 목적어 N''와 직접 목적어 N''가 동일한 운율구에 들어 갈 수 없음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제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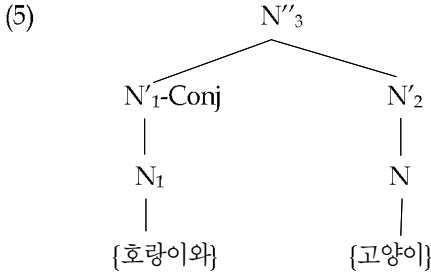
#### (4) OCP(XP)

동일한 최대투사범주들이 하나의 운율구 내에 나타나면 안 된다.

아래 (5)와 같이 명사구 두 개가 등위 접속된 경우에는 각각 한 단어로 구성된 두 개의 운율구를 형성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한 단어짜리 운율구는 가장 덜 선호되지만 위반할 수 없는 제약인 OCP(XP)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한 단어짜리 운율구가 (5)의 구조에서 생겨난다.<sup>4)</sup>

3) 한국어에서 한 단어짜리 운율구는 가장 덜 선호되지만 위반될 수 없는 제약인 성분통어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 한 단어짜리 운율구가 생겨난다.

4) 통사구조를 참조하는 두 개의 제약을 위반할 수 없다는 말은 강조(focus)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강조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 두 제약도 위반될 수 있다(Kim 1997: 223-240 참조).



이 외에도 운율구에 관한 몇 가지 제약을 더 제시했는데, 그들을 정리하여 제약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6ㄱ)에서 (6ㄴ)으로 내려 갈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6) 관련 제약들과 제약표

ㄱ. 성분통어(C-command)

a와 β가 하나의 운율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가 β에 성분통어되어야 한다.

ㄴ. OCP(XP)

동일한 최대투사 범주들이 하나의 운율구 내에 나타나면 안 된다.

ㄷ. 길이배열 제약(한자어 제약)

한 운율구에서, 긴 음운단어가 짧은 음운단어보다 앞에 배열된다.

ㄹ. 운율구 최소길이 제약(P-phrase minimality)

한 단어짜리 분지하지 않는 운율구는 금지된다.

ㅁ. 음절접촉 제약(SyllCon)

음절경계에서 열림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ㅂ. 계층정렬 제약(hierarchical alignment, 운율구 최대길이 제약)

운율어는 상위의 운율구에 적절하게(properly) 정렬되어야 한다.

아래의 { }는 하나의 운율구를 가리키며, \*표는 제약의 위배를, 그리고 ☞표는 선택된 최적형을 나타낸다. 합성어(compounds)의 운율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에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Kim 1997: 346).

	성분통어	PM	길이배열 (한자어)	OCP (XP)	Syll Con
☞ {콩-넉}				*	
{콩-엿}				*	*
{콩} {엿}		**			

{늦} {여름}		**			*
☞ {는-너름}					
{늦-여름}					*
☞ {독점-육}				*	
{독-점육}	*		*		*
{독점} {육}		**			
{경-양식}	*				
{경} {양식}		**	*		
☞ {경양식}				*	*
☞ {백-여우}				*	
{백-여우}				*	*
{백} {여우}		**	*		
☞ {검-열}				*	
{검-열}				*	*
{검} {열}		**			

합성어의 운율구는 주로 분지(branching)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일반성은 통어지배 제약에 의해 포착된다. 그러나 OCP(XP) 제약은 합성어에서는 항상 만족된다. 왜냐하면 합성어 내에서 최대 투사(maximal projections)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항상 만족되므로 그 평가 결과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alpha \beta\}$ 와 같은 이분지 합성어에서,  $\beta$ 가  $\alpha$ 를 항상 통어지배하므로 이들은 항상 하나의 운율구를 이룬다. 그리하여 {늦-여름}, {독점-육}, {콩-엿}, {백-여우}, {검-열} 등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이들은 두 운율어가 하나의 운율구를 이루므로 음절접촉 제약에 의해 음절경계에 후행하는  $j$ 가  $n$ 으로 변한다.

'검열'은 [검널]~[거멸]의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데, 이는 하나의 운율구로 파악될 때는 다른 예들처럼 'ㄴ'을 출현시키지만 각각의 독자적인 단일 음절어로서 파악될 때는 연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음절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운율어를 이룰 때는 [거멸]로 연음된다. 이러한 연음은 음절 리듬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우리말에서는 외적, 내적인 연음 현상이 두루 나타나는 음절 언어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권경근 2006 참조).

다음 예들도 위에서 고찰한 운율구 성립 요건 즉, 성분통어, OCP(XP), 운율구 최소길이, 계층정렬 제약을 만족시키므로 운율구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운율구를 적용 범위로 하는 열림도 조정이 발생하여  $j$ 가 'ㄴ'으로 음성 실현됨을 보여준다.

### (7) 합성어

ㄱ. 고유어: 콩+엿, 물+엿, 밤+웃, 봄+여름, 불+여우, 담+요, 눈+요기, 바깥+양반

ㄴ. 한자어: 기업+예산, 직행+열차, 남존+여비, 국민+윤리, 한국+유약, 황금+육

실, 대전+역, 내복+약, 늑막+염, 영업+용, 식용+유, 휘발+유, 색+연필, 독점  
+육, 산림+육, 항학+열

ㄷ. 혼종어: 백+여우, 알+약, 물+약, 서울+역,

(8) 파생어

ㄱ. 고유어: 풋+웃, 한+여름, 늦+여름, 첫+열매, 암+염소, 살+여울

ㄴ. 한자어: 신+여성, 공+염불, 총+연습,

(9) 구 구성

ㄱ. 설흔 여섯, 이상 야릇, 먹은 옛, 문을 열고

ㄴ. 한자어: 세계적 유물, 제일 여당, 국어학 연구자

ㄷ. 혼종어: 재미있는 야구경기, 뜨거운 열, 쓴 약, 깔끔한 유니폼

그러나 몇몇 한자어의 경우는 독립된 두 음절어가 모여 하나의 운율어를 이루기도 한다. 이때는 ‘ㄴ’출현의 분절음적 환경이 같을지라도 적용 영역이 운율구가 아니므로 ‘ㄴ’이 음성 실현되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10) 곡예[고계~고계/\*공녀], 급여[그벼/\*금녀], 겸양[겨망/\*겸녕], 공유[공유/\*공뉴], 번역[버녁/\*번녁], 활약[화락/\*활락], 결연[겨련/\*결련], 물염치[모렴치/\*물렴치], 한약재[하낙재/\*한낙재], 송별연[송벼련/\*송벼련]

운율어인지 운율구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ㄴ’이 수의적으로 출현하는데, 아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11) 금육[그몽/금녕], 간염[가념/간념], 환율[화눌/환눌], 극열(極熱)[그결/궁녘], 간염[가념/간념], 골육[고륙/골륙], 살육[사륙/살륙]

그러나 운율구를 이룰지라도, 후행 요소가 j로 시작되지 않고 i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열림도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ㄴ’이 출현하지 않는다. 열림도 원리는 음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12) ㄱ. 고유어: 아침이슬[\*아침니슬], 책이름[\*챙니름]  
ㄴ. 한자어: 심장이식[\*심장니식], 문학이론[\*문학니론], 지식인[\*지성닌], 언론인[\*얼론닌], 갑인(甲寅)[\*갑닌], 관인(官印)[\*관닌], 강: 일 등(降一等)[\*강 : 닐뜨], 공중인[\*공중닌], 길일(吉日)[\*길릴], 식목일[\*식몽닐], 육이오[유기오] (충남방언에서 [유니오]도 가능), 밤이[\*밤니], 군인[\*군닌], 상인[\*상닌], 기

업이운[\*기엄니운], 어학이수[\*어항니수], 첫인사[\*천년사], 첫인상[\*천년상]

열림도(공명도) 동화에 의해  $j \rightarrow n$ 로 되는 현상은 일찍이 김차균(1981, 1991)에 의해 논의된 바 있는데, '색연필[생년필]의 도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3) / # s <sup>h</sup> ε g # j ə n + p <sup>h</sup> i r # /	기저표상
# s <sup>h</sup> ε k <sup>⌊</sup> j ə n <sup>⌋</sup> p <sup>h</sup> i l #	중간표상
# s <sup>h</sup> ε k <sup>⌊</sup> j ə n <sup>⌋</sup> p <sup>h</sup> i l #	$j \rightarrow j$
# s <sup>h</sup> ε ŋ <sup>⌊</sup> j ə n <sup>⌋</sup> p <sup>h</sup> i l #	열림도 높이기
# s <sup>h</sup> ε ŋ <sup>⌊</sup> n ə n <sup>⌋</sup> p <sup>h</sup> i l #	열림도 낮추기
[ s <sup>h</sup> ε ŋ <sup>⌊</sup> n ə n <sup>⌋</sup> p <sup>h</sup> i l ]	음성형

C\_V의 위치에서  $j$ 는 보통의  $j$ 보다 더 고설화되어 자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 $j \rightarrow j$  / C<sup>⌊</sup> \_\_\_ V' 규칙과 열림도 높이기 규칙 그리고 열림도 낮추기 규칙이 차례로 적용되어 음성형 [생년필]을 도출시켰다.5) 그러나 열림도 동화는 음절경계 사이의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자음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되었다. 그리하여 '꽃잎'의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j$ ,  $w$ 와 같은 열림도 6의  $\emptyset$ 를 설정하게 된다. 이때의  $\emptyset$ 는 / $\emptyset a \emptyset u$ /(아우) 등에서 초성으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emptyset i \emptyset da$ /(→  $\emptyset it$  ⌈Ta)[ $\emptyset i T'a$ ](있다), / $\emptyset i \emptyset \emptyset a$ [/ $\emptyset i \emptyset a$ ](이어) : / $gi \emptyset da$ /(→  $git$  ⌈Ta)[ $git$  ⌈T'a](굿다), / $gi \emptyset \emptyset a$ [/ $gi \emptyset a$ ]에서는 어간 끝소리로 쓰이므로 음절중성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꽃잎'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4) / # k o c <sup>h</sup> # $\emptyset$ i p <sup>h</sup> #/	기저표상
# k o t <sup>⌊</sup> # $\emptyset$ i p <sup>⌊</sup> #	달힘소리 되기
# k o t <sup>⌊</sup> $\emptyset$ i p <sup>⌊</sup> #	# 지우기
# k o t <sup>⌊</sup> y i p <sup>⌊</sup> #	$\emptyset \rightarrow j$
# k o n <sup>⌊</sup> y i p <sup>⌊</sup> #	열림도 높이기
# k o n <sup>⌊</sup> n i p <sup>⌊</sup> #	열림도 낮추기

$\emptyset$ 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emptyset i$ 만이  $j i$  단계를 거쳐  $n i$ 로 실현되고 다른 모음 앞의

5) 열림도 높이기 규칙: XVC<sup>⌊</sup>CVY의 구조에서 C<sup>⌊</sup>의 열림도가 C의 열림도보다 낮을 경우에 (i) C<sup>⌊</sup>=t<sup>⌊</sup>이고 C=s이거나, C<sup>⌊</sup>=n<sup>⌊</sup>이고 C=r이면 C<sup>⌊</sup>의 열림도를 1 높이고, (ii) 그 밖의 경우는 C<sup>⌊</sup>의 열림도를 높여서 3로 만들어라. 열림도 낮추기 규칙: XVC<sup>⌊</sup>CVY의 구조에서 C<sup>⌊</sup>의 열림도가 C의 열림도보다 낮을 경우에 C의 열림도를 낮추어 C<sup>⌊</sup>의 열림도와 같게 하라.(김차균 1991:118)



∅는 j가 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또한 조사 ‘이, 이랑’ 및 ‘이다’ 그리고 한자어 ‘인(人)’은 ㄴ을 출현하지 않으므로 /∅ i : i/의 변별성을 인정할 필요도 생긴다. 더욱이 ∅와 동일한 6도에 속하는 j, w와의 구체적인 음성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애매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강도의 차이도 분명하게 구별 짓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ㄴ’을 출현시키는 환경으로서 i/j를 묶어 이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j만이 열림도 동화를 입어 n으로 실현되고, i는 모음이므로 열림도 동화와 무관하고 ‘ㄴ’삽입의 환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i와 j를 분리시키면 김차균(1991)의 열림도 동화로서 ‘ㄴ’의 출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영어에서도 i와 j는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구개음화 현상에서도 고모음 /i/와 활음 /j/는 비대칭성을 보이며(miss you / miss it), 마찰음화 현상에서도 비대칭성을 보인다(suggest-/i/ve / suggest-/j/on, digest-/i/ble / digest-/j/on).

j가 열림도 조정에 의해 n으로 열림도를 낮춘 것으로 보는 견해는 Lee & Lee(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최적성 이론의 틀 속에서 ‘음절경계에서 열림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음절접촉 제약(SyllCon)을 만족시키기 위해 n으로 열림도를 낮추었다고 본다. j는 SyllCon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Max F(vocalic) 그리고 Dep F(nasal)을 위배한 결과 n으로 바뀐다. 그리하여 이런 현상을 탈모음화(j-devocalization)라 불렀다. 이는 Max F(vocalic)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j의 자질값은 [-모음성, -자음성]이므로 j의 탈모음성은 자질론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일 열림도 낮추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선행하는 음절말 자음이 열림도를 높혀 SyllCon을 만족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김차균(1991)의 설명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 3. 비어두 위치의 재구조화 과정

지금까지 운율구 내에서 음절접촉 제약을 지키기 위해 열림도를 조정된 결과(j→n) ‘ㄴ’이 음성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운율구를 구성하는 후행 요소가 i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음절접촉 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열림도 조정에 의해 ‘ㄴ’을 실현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어이건 한자어이건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i 모음 앞에 ‘ㄴ’이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어금니’[어금니], ‘꽃잎’[꼴넙] 등의 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를 발생시켰다.

Lee & Lee(2006)에서는 ‘ㄴ’실현의 조건 환경으로 보았던 j와 i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i 앞에 나타나는 ‘ㄴ’과 j→n의 열림도 조정 결과 나타나는 ‘ㄴ’은 기원도 다르고 음성학적 동기성도 서로 달라서, 이들은 이질적이므로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i 앞에서 출현하는 ‘ㄴ’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남에 주목하였다.

(15) ㄱ. 고유어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밤일	[밤닐]	[바밀]
밭입자	[반님자]	[바딤자]
앞이마	[암니마]	[아비마]
홀이불	[혼니불]	[호디불]

ㄴ. 한자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심장이식	*[심장니식]
문학이론	*[문학니론] <sup>6)</sup>
지식인	*[지싱닌]
언론인	*[얼론닌]

ㄷ. 몇몇 고유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이슬	*[아침니슬]
책이름	*[챙니름]

ㄹ. 몇몇 고유어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어금니	[어금니]	*[어그미]
꽃잎	[꼰닙]	*[꼬딤]

(15ㄹ)의 ‘어금니’[어금니], ‘꽃잎’[꼰닙] 등에서는 비어두 위치에서 항상 ‘ㄴ’이 실현된다. 그런데 이 예들은 역사적으로 ‘니’(齒)와 ‘닐’ (葉)처럼 어두에 ‘ㄴ’을 가진 형태였었는데, 어두 위치에서 ‘ㄴ’탈락을 경험한 예들이다. 그리하여 공시음운론에서는 어두 위치의 ‘ㄴ’을 탈락시키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ㄴ’을 유지한다. 이 예들은 ‘니→이’와 ‘닐→잎’으로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위치에 따른 진행 속도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두 위치에서는 재구조화가 완성되었으나, 비어두 위치에서는 아직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예들보다 재구조화의 완성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ㄷ)의 ‘아침이슬’, ‘책이름’의 두 번째 성분을 이루는 ‘이슬’, ‘이름’ 등은 본디부터 어두의 ‘ㄴ’을 갖지 않은 것이어서 입력형에 어두 ‘ㄴ’이 존재하지 않는 예들이다. 그러므로 이 예들은 *SyllCon*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j \rightarrow n$ 의 변화와 무관하게 된다.

/밤#이슬/→[밤니슬]이 되는 현상은 음성적 단계에서 조정된 현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두 음절의 모음은 그와 짝을 이루는 즉,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모음보다 길이가 더욱 길다. 러시아어에서도 절대 어두 위치의 모음은 그 길이가 커진다고 한다. 음성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발생한다. 범주적인 음운론에서 수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길이-의존적이고 점진적인 음성적 차원에서의 수행되는 현상이다

6) 화자에 따라 [문학니론]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Barnes 2006:50). ‘이슬’에서 어두 ‘이’의 길이가 음성적 차원에서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ji]가 되어 [j]는 초성 위치에서 ‘앞열≥뒤열’을 지키기 위해 [ɲ]가 되어 [밤니슬]이 나타난 것이다. 중세국어 당시의 어두에 ‘ㄴ’을 가지지 않았던 어사들에서 나타나는 ‘ㄴ’출현 현상은 절대 어두 위치의 모음 길이 증대(durational enhancement)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ㄴ)의 ‘심장이식’, ‘문학이론’, ‘지식인’, ‘언론인’과 같은 한자어의 두 번째 성분인 ‘이식’, ‘이론’, ‘인’ 등도 이들의 본음이 어두 ‘ㄴ’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또한  $j \rightarrow \eta$ 의 변화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15ㄱ)의 ‘밤입자’, ‘앞이마’, ‘흙이불’, ‘밤일’은 ‘ㄴ’출현의 수의성을 보인다. 이들은 종래 ‘ㄴ’삽입의 수의성으로, 또는 이형태적 변이(allomorph variation) 현상으로 설명되어진 예들이다(Lee & Lee 2006). 그러나 열림도 동화에 의한  $j \rightarrow \eta$ 의 조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ㄴ’삽입의 수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형태적 변이 현상으로 볼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이형태는 그 나타나는 환경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데 이 경우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 변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입자’, ‘이마’, ‘이불’ 등은 중세 문헌에서 어두 ‘ㄴ’을 갖고 있던 어휘들이었다. ‘님자’, ‘니마’, ‘니불’ 등이 소위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어두 ‘ㄴ’이 탈락하여 (15ㄱ)이 된 것이다. 어두 위치에서는 ‘입자’, ‘이마’, ‘이불’ 등으로 재구조화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비어두 위치에서는 재구조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진행 중인 과정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비어두 위치에서 ‘ㄴ’ 유지형과 탈락형이 공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ㄴ’실현의 수의성을 보인다.<sup>8)</sup>

어간 재구조화는 특정 규칙이 해당 형태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일어난다고 본다. 새로 첨가된 규칙이 수의적(optional) 적용 단계를 거쳐 필수적(obligatory) 적용 단계로 나아간다고 가정할 때, 상이한 형태소들 사이에서는 물론, 동일 형태소에 대해서도 개신형과 비개신형이 공존하는 단계가 존재할 것이다.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동일 화자가 동일 형태소에 대해서 하나의 표면형(surface form)이 아닌 둘 이상의 표면형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다가 첨가된 규칙이 해당 형태소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표면형은 일관되게 하나의 형태로만 출현할 것이다. 이 때에는 더 이상 기존의 기저형에 공식적으로 규칙이 적용되어 현재의 표면형이 산출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간이 표면형과 동일한 모습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소신애 2004).

따라서 진행 중인 재구조화란 말 그대로 변화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가 지속

7) ‘위’(髀)에 대응되는 만주어가 nisikte, nisikta이므로 중세국어 이전에 n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 그러나 ‘밤일’의 경우는 설명을 더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 예는 중세 문헌에 ‘닐’(事)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밤일’은 ‘밤입자’의 패러다임에 유추되어 이들과 동일하게 n 출현의 수의성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밤일’과 같은 유형의 예들을 위해 패러다임 단일성(paradigm uniformity) 제약 내지는 어휘항목의 실현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는 일관성 지표(uniform exponence)를 필요로 한다(Kenstowicz 1996:382).

되고 있는 과정을 이른다. 다시 말해 변화의 기제 자체가 공식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어휘에 따라서는 이미 해당 변화가 완료되어 통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식태라는 전체 속에서 보면 해당 변화의 기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신승용 2006).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어두의 ‘ㄴ’탈락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춤법으로는 재구조화가 완료된 모습 ‘꽃이불’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의 발음은 [쁘니불~찌디불]로 공존하고 있어서 ‘ㄴ’삽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탈락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거듭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니불’이 ‘이불’로의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꽃이불’에 의한 철자식 발음으로 청년층에서는 모든 환경 특히 형태소 경계의 자음 뒤 환경에서도 재구조화하여 [찌디불]로 발음하는 경향이 높다. 어두에서 발달한 이 제약은 어중의 모든 환경은 물론 합성어의 제2 요소에서도 필수적으로 적용될 때, ‘ㄴ’탈락에 의한 재구조화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현재라는 공식태 속에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가며 진행 중인 재구조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화자의 수의적인 선택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ㄴ’첨가 내지는 ‘ㄴ’탈락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단순히 이 형태의 교체로 볼 수도 없다. 이 예들은 자유 변이형을 보이기 때문이다.

훈춘 지역어를 분석한 소신애(2004)에 따르면, 이 지역어의 어두 ‘ㄴ’탈락 규칙 또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라 한다. 따라서 세대별 화자들의 어간에서 어두 ‘ㄴ’탈락 규칙의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아래 표는 ‘넣다(投入)’와 ‘이다(載)’라는 두 어휘 항목의 세대별 표면 음성형을 제시한 것이다. 노년층 제보자들은 이들을 주로 비개신형인 ‘넣다, 넣다’와 ‘니다’로 실현시키고, 중년층 이하 청년층 제보자들은 이들을 개신형인 ‘열다와 ‘이다’로 실현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 형태소에 대한 둘 이상의 표면형이 공존하는 단계가 존재함은, 이 지역에서 어두 ‘ㄴ’탈락에 의한 어간의 재구조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말해 준다.

(16)

	69세~58세	46세~27세
넣-(投入)	/넣-/ (또는 /넣-/) / 열-/	/열-/
이-(載)	/니-/	/이-/

9) 교체형이 공식태 내에서 화자에 따라, 그리고 동일 화자인 경우에도 발화 상황에 따라 두 형이 수의적으로 선택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어간 재구조화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간 재구조화라는 변화가 현재라는 공식태 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변화이기 때문에 두 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화자에 따라, 동일 화자인 경우에도 발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현되는 수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신승용 2006 참조).

운율구의 어두 위치에서는 ‘ㄴ’탈락이( ${}^w[n]i$ 의 제약 위계가 높아져)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재구조화(/니-/→/이-/)<sup>10</sup>가 거의 이루어졌으나(일부 방언 제외), ‘ㄴ’탈락의 적용 영역이 운율구의 비어두 위치(모든 위치)로 확장함에 따라( ${}^w[n]i \rightarrow {}^*ni$ 로 제약이 변하여) 운율구(prosodic phrase)의 비어두 위치에서는 아직도 재구조화가 진행 중에 있어 ‘ㄴ’탈락형과 ‘ㄴ’유지형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운율구의 비어두 위치에 나타나는 이러한 ‘ㄴ’유지형을 일률적으로 ‘ㄴ’-첨가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선철(2003)의 발음 실태 조사도 재구조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그는 남자 제보자 152명과 여자 제보자 198명으로 서울 화자 350명을 대상으로 ‘ㄴ’-출현을 조사하여 고유어 복합어의 결과를 그 출현 선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7) ㉠. ‘ㄴ’-첨가를 덜 선호하는 단어

뫼박이매(1.14%), 땅입자(1.42%), 첫인상(5.71%), 새벽이슬(7.43%), 밤이슬(14.29%), 논이랑(16.86%), 힘입다(17.14%), 음이름(17.43%), 비단잉어(18.57%), 산이매(23.14%), 밭이랑(24.29%), 옆잇기(24.57%), 끝말잇기(24.86%), 차림이불(28.29%), 첫이레(31.43%), 솔이끼(32.57%), 큰일01(38%), 낮익다(40.86%)

㉡. ‘ㄴ’-첨가와 연음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단어

꽃이슬(47.14%), 솜이불(47.43%), 열일곱(47.71%), 안팎일(49.43%)

㉢. ‘ㄴ’-첨가를 더 선호하는 단어

큰일02(61.14%)<01은 작은 일의 반대말이며, 02는 ‘집안의 큰 일’을 가리킴>

이러한 결과는 우선 실제 언어생활에서 ‘ㄴ’-출현이 확일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7㉠)은 비어두 위치에서도 재구조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며, (17㉡)은 비어두 위치에서 재구조화가 중간 정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17㉢)은 비어두 위치에서 재구조화가 느리게 진행 중인 보수적인 단어를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음운론적 재구조화는 모든 어휘 항목 혹은 모든 화자에게서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화자에 따라 점진적으로(gradually)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음운 규칙의 첨가 및 적용 영역의 확대에 의한 재구조화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서 필수적 적용 단계로 나아가면서 신형과 구형의 공존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sup>10)</sup>

10) 어휘확산가설(lexical diffusion hypothesis, Wang 1969)이 대두한 이래, 음운 변화의 어휘적 점진성 문제는 역사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역사 언어학 이론이 음운 변화의 ‘내적

운율구의 비어두 위치에 나타나는 변이형 ‘나’와 ‘이’의 관계는 기저 연쇄 ‘나’에서 ‘ㄴ’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개성 모음 i 앞의 ‘ㄴ’이 탈락하는 것은 국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i 앞에서 ‘ㄴ’은 구개음화하고, 구개음화된 ㄴ은 이 환경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론 음절초성을 강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변이형 ‘나’와 ‘이’의 관계를 포착하는 음운론적 과정들은 자연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나’→‘이’의 과정은 일부 형태소에 국한되지 않고 ‘니’ 연쇄를 포함한 대부분의 형태소에서 관찰되며, 또한 일부 화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관찰된다. 실제로 이러한 음운 현상은 개별 어휘나 개별 화자에 따른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현상들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과정은 일반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변이형 ‘나’와 ‘이’의 관계는 자연성과 일반성을 모두 갖춘 ‘나’→‘이’라는 음운 과정으로써 각각 설명될 수 있다. ‘나’와 ‘이’의 변이가 기저형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인 교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음운 과정의 자연성과 일반성 이외에도 공시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sup>11)</sup>

해당 음운 과정으로 인한 교체형이 확인되는 경우, 그 음운 과정은 공시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이’ 현상은 공시적인 음운 과정, 즉 ‘음운 교체’라 할 수 있다. 기저의 연쇄에 아무런 교체도 일어나지 않은 형태(‘나’형)와, ‘나’→‘이’에 의해 발생한 형태(‘이’형)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변이는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수의적 교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운율구 내부의 어두 위치에서 작용하는 \*ni 제약의 적용 영역이 더욱 일반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음운 변화에 대한 어휘적 점진성과 공시적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ㄴ’탈락의 진행이 느린 보수적인 어형에서 ‘ㄴ’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구조화를 일으키는 음운 변화는 공시적 변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18) /발님자/	[반님자] ~ [바님자]	‘발임자’
/앞니마/	[암니마] ~ [아비마]	‘앞이마’
/홀니불/	[혼니불] ~ [호디불]	‘홀이불’

인 시간 차원(internal time dimension)과 ‘어휘적 차원(lexical dimension)’을 소홀히 해 온 데 대한 반성으로서, ‘음운 변화는 어휘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수행된다’는 생각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즉 어떠한 음운 변화가 처음부터 모든 어휘에 일제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산의 S-곡선(S-curve)(Baily 1973)을 그리며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결과’를 기술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변화의 ‘진행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소신에 2006 참조).

11) 수의적 교체와 기저형 선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소신에(2006) 참조.

이러한 공존 현상은 재구조화가 공시적 변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수행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약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다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면 즉, 이 제약의 위계가 높아지면 모든 위치에 존재하던 ‘ㄴ’은 ‘ㄴ’이 탈락된 ‘이’형으로 재구조화될 것이다.

#### 4. 맺음말

우리말의 복합명사 및 구 구성의 경우 ‘ㄴ’이 표면상에 음성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은 도출 과정에서 첨가된 것이 아님을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ㄴ’의 출현은 복합명사 및 구 구성이 이루는 운율구 내에서 작용하는 음절접촉 제약에 의해  $j$ 가  $n$ 으로 조정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음절접촉에 의한 열림도 원리는 음절경계에서 ‘앞 열림도  $\geq$  뒤 열림도’를 지키고자 한다. 그 결과 이를 지키기 위해 열림도를 조정하게 된다. 음절경계 뒤에 오는  $j$ 는 자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원리의 적용을 받아 그 열림도를 낮추게 된 결과 ‘ㄴ’이 출현하게 된다.

‘ㄴ’을 출현시킨 또 다른 기제는 모음  $i$  앞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모음  $i$  앞에서 ‘ㄴ’이 첨가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j$ 나  $i$  모음 앞에 ‘ㄴ’이 첨가되는 음성학적 동기가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주격조사 ‘이’ 또는 지성사 ‘이’ 앞에서는 ‘ㄴ’이 절대로 첨가되지 않음을 보아 이 환경은 ‘ㄴ’첨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i$ 로 시작하는 한자어는 결코 ‘ㄴ’첨가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의 조건으로서  $j$ 와 모음  $i$ 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형은 ‘이’ 앞에 ‘ㄴ’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래 ‘나’형이었던 것들이다. 근대국어론 거치면서 소위 두음법칙의 영향으로 ‘나’형이 ‘이’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ㄴ’ 유지형과 탈락형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어두음의 ‘ㄴ’탈락이 해당 운율구의 비어두 위치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감에 따라 현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된다. 어휘확산 가설과 사회언어학적 변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재구조화 과정은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수형과 개신적인 변이형이 공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i$  모음 앞의 ‘ㄴ’이 탈락되지 않은 보수형이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ㄴ’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어두 위치에서는 음운론적인 ‘ㄴ’탈락이 범주적(categorical)으로 적용되어 개신형을 발생시키는 반면(‘니불→이불’), 비어두에서는 ‘ㄴ’탈락이 점진적(gradual) 확산 과정에 의해 수의적으로 발생하여 보수형과 공존하게 된다(‘꽃니불→꼬디불, 끈니불’). 발생 위치에 따른 두 종류 즉, 어두에서의 음운론적(phonological)인 ‘ㄴ’탈락과 비어두에서의 음성적(phonetic)인 ‘ㄴ’탈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언어 변화와 마찬가지로 ‘ㄴ’출현 현상도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절음적 요인뿐만 아니라 운율적 차원의 적용 범위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ㄴ’출현을 단순한 공시적 일반 현상으로 보는 대신에 그 음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일반적인 경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기제가 각각 다른 ‘ㄴ’출현 현상을 단순한 공시적 ‘ㄴ’첨가로 보고 그 조건은 선행 요소가 중성을 가지며, 후행 요소는 자립형태소로서  $i$ 나  $j$ 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광모. (1992). ㄴ첨가와 사이시옷에 대한 연구, *언어학*, 14, 31-51.
- 곽동기. (1992). 운율단위에 의한 국어 음운현상의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국경아, 김주원, 이호영. (2005). 선후도 조사를 통한 ㄴ첨가 현상의 실현 양상 연구, *말소리*, 53, 37-60.
- 권경근. (2006). 국어의 음운론적 유형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7, 83-108.
- 기세관. (1990). 국어 단어형성에서의 /ㄹ/ 탈락과 /ㄴ/ 첨가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기세관. (1991). 첨가음 /ㄴ/의 기능, *어문논총*, 12 · 13, 27-51, 전남대.
- 기세관. (1999). 첨가음 ‘ㄴ’의 성격, *선청어문*, 27, 633-647, 서울대 국어교육과.
- 김노주. (2005). 운율구의 정의에 관하여: 음운론과 통사론의 상호작용, *영어학의 최근 논점*,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선철. (2003). 표준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 김세진. (2009). 열림도 동화의 관점에서 본 ‘ㄴ끼우기’, *한글*, 284, 5-72.
- 김승근. (1985). 한국어 어중 첨가음 ㄴ의 음성학적 원인 고찰, *선오당 김형기선생팔절기념 국어학논총*, 89-100, 서울: 창학사.
- 김옥영. (2008). ㄴ-첨가 현상의 제약: 강릉 지역어를 중심으로,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4(1), 53-75.
- 김유범, 박선우, 안병섭, 이봉원. (2002). ㄴ삽입 현상의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46, 41-71.
- 김정우. (1998). ㄴ삽입의 음운론과 형태론,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789-813, 서울: 태학사.
- 김차균. (1981). 음절이론과 국어의 음운규칙, *논문집*, 8(1), 5-50,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차균. (1991). 향명성 구개음  $\eta$ ,  $\lambda$ ,  $y$ 의 음운 현상, *어문연구*, 21, 461-486.
- 박선우. (2005). 위치적 유효성과 한국어의 ㄴ삽입,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1(2), 323-335.
- 박종희. (2001). 오름활음의 음절 내부 위치, *언어*, 26(4), 715-733.



- 성낙수. (1987a). 이른바 ‘ㄴ 덧나기’에 대하여, *한국어학과 알타이어학*, 349-360, 대구: 효성 여대출판부.
- 성낙수. (1987b). 이른바 한국어의 두음법칙 연구, *한글*, 197, 3-39.
- 성낙수. (1995c). 구개음화되는 /n/의 표기에 대하여, *동방학지*, 89 · 90집, 131-148, 연세대.
- 소신애. (2004). 어간 재구조화의 진행 과정(1), *어문연구*, 32(4), 117-139.
- 소신애. (2006). 수의적 교체를 통한 점진적 음운 변화-함북 육진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학*, 48, 101-124.
- 신승용. (2004). 교체의 유무와 규칙의 공시성·통시성, *어문연구*, 32(4), 63-90.
- 신승용. (2006). 수의적 음운 현상의 종류와 그 특성, *국어국문학*, 142, 137-161.
- 양순임. (1996). 현대국어의 사잇소리 덧나기와 된소리되기, *우리말연구*, 6, 35-68.
- 엄태수. (1995). 복합어의 음운현상과 최적이론, *어문연구*, 88, 101-121.
- 오미라. (2006). ㄴ-삽입 환경의 재검토, *언어학*, 14(3), 117-135.
- 오새내. (2001).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ㄴ삽입의 확장, *한국어학회 136차 연구발표회*.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전철웅. (1979). 음소변동에 관한 일 고찰, *선청어문*, 10, 65-95, 서울대 국어교육과.
- 조현수. (1995). 중학생 발음 오류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논문(한국교원대).
- 최태영. (1974). /n/ 첨가고, *국어문학*, 16, 97-120.
- Barnes, J. (2006). *Strength and weakness at the interface: Positional neutralization in phonetics and phonology*,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Ito, J., Kitagawa, Y., & Mester, A. (1996). Prosodic faithfulness and correspondence: evidence from a Japanese argot,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5, 217-294.
- Kaisse, M. (1985). *Connected speech: The interaction of syntax and phonology*, New York, NY: Academic Press.
- Kenstowicz, M. (1997). Uniform exponence: exemplification and extens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3, 1-23, 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
- Kim, H.-S., Kim, B.-S., & Oh, M.-R.. (2007). An optimality theoretic analysis of phonetically motivated /n/-insertion, *언어학* 15(2), 187-205.
- Kim, N.-J. (1997). Tone, segments, and their interaction in North Kyungsang Korean: A correspondence theoretic account, Ph. 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
- Kim, N.-J. (2000). Prosodic phrasing in North Kyungsang Korean, *Studies in*

- Modern Grammar* 22, 173-197.
- Kim, N.-J. (2004a). A phonological weight effect on prosodic phrasing: with reference to Chonnam Korean, *The New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29, 181-205.
- Kim, N.-J. (2004b). The same generalization in three different accounts of North Kyungsang Korean prosodic phrasing,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0(1), 111-128.
- Kim, N.-J. (2006). A phonological weight effect on prosodic phrasing in Seoul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2(1), 3-25.
- Kim-Renaud, Y.-K. (1974/1991).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anshin Publishing Co.
- Lee, P.-H. (2004). Korean n-insertion as domain-initial amplifier. *The Proceedings of Korean Linguistics*.
- Lee, Y.-S., & Lee, M.-K. (2006). n-insertion as y-devocalization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1(3), 413-440.
- Nespor, M., & Vogel, I. (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Reinhart, T. (1981). Definite NP anaphora and c-command domains. *Linguistic Inquiry* 12, 605-635.
- Selkirk, O. (1986). On derived domains in sentence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3. 371-405.
- Shin, S.-H. (1997). *Constraints within and between syllables: Syllable licensing and contact in optimal theory*, Thaeaksa Co, Seoul.
- Trask, R. (1996).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Arnold.

#### 이희두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전화: 063)850-6521

E-Mail: hello@wonkwang.ac.kr

Received on 29 October,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9 November, 2011

Accepted on 29 November, 2011